

2021년 11-1

K I E T 경제산업동향

2021. 11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美 테이퍼링이 신흥국 경제 및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10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미국 3분기중 전기비 2.0%, 중국 전년동기비 4.9% 성장

- 미국은 9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의 부진세가 이어진 가운데 3분기중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 등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2.0%로 하락
- 일본은 8월 실물지표들이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전월과 달리 급락하고, 유로존은 역대 경제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체감지수가 하락 전환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진입
- 중국은 9월 공급 지표들이 둔화세를 보인 반면, 수요 지표들이 확대되는 등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3분기 성장률이 2020.3분기 이후 1년 만에 최저
- 달러화는 10월중 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약세를 보이다, 11월 들어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확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
- 유가는 10월에 산유국들의 증산 속도 유지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11월 초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일시 하락한 이후에 상승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3%, 9월 전산업생산 1.3% 증가

- 지난 3분기 국내 실질GDP는 수출 증가 전환에도 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0.3%로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4.0% 증가
 -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에서 전월비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서비스업생산이 증가 전환한 데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확대·가계대출 둔화, 11월 초순(11.1~11.10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상승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폭 역시 확대된 반면에,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중 글로벌 인플레이 우려 등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에, 11월 들어 정부 당국의 시장안정화 대책 강구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10월 중후반 이후 투자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11월 들어 연준의 FOMC 경계감과 미·중 갈등 우려 등으로 상승 전환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감소·서비스업생산 증가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기계장비와 1차금속 등에서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자동차 등은 감소한 여파로 전년동월비 1.9% 감소
 - 제조업ICT 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공업과 경공업도 다시 감소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숙박·음식점 등이 큰 폭 증가하면서 3.3%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4.0% 증가, 전월비 기준 3.4% 증가

□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된 반면에,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5% → 2.4%)

□ 수출입 : 10월 수출 +24.0%, 수입 +37.8%, 무역흑자 17억 달러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4.0% 증가한 556억 달러, 수입은 37.8% 증가한 539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17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대상국에 있어서도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이 지속

1. 해외경제

□ 미국 : 9월 경제지표 혼조세, 3분기 성장률 전기비 2.0%로 하락

○ 9월중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체감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여건의 불안정성을 반영. 지난 3분기중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기비 2.0%로 하락

- 산업생산이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확대된 반면, 소매판매가 공급망 문제로 인한 재고 부족에도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 유지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고용과 공급자 인도, 재고 등에서 동반 상승한 데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가 2020.11월 이후 최저치(86.6)로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 하락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올 들어 최소폭(+19.4만개)에 그친 반면에, 실업률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상승세
- 지난 3분기중 개인소비(전기비 12.0% → 1.6%)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설비투자도 감소 전환(12.1% → -3.2%)하면서 성장률도 2.0%로 하락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3	-3.4	6.3 (0.5)	6.7 (12.2)	2.0 (4.9)				
산업생산 (IT생산)	-0.8 (3.9)	-7.2 (7.1)	1.0 (3.2)	1.6 (3.7)	1.1 (-0.1)	0.5 (-0.7)	1.0 (-0.4)	-0.1 (0.0)	-1.3 (0.6)
내구재수주	3.5	-13.6	5.5	3.0	2.9	0.8	0.5	1.3	-0.3
소매판매	3.3	0.3	8.0	6.5	-0.7	0.9	-1.6	0.9	0.7
소비자물가	1.8	1.2	0.9	2.0	1.6	0.9	0.5	0.3	0.4
실업률(%)	3.7	8.1	6.2	5.9	5.3	5.9	5.4	5.2	4.8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206.1	-208.4	-224.1	-73.2	-70.3	-72.8	-80.9
ISM 제조업지수 ¹⁾	51.3	52.5	61.4	60.8	60.2	60.6	59.5	59.9	61.1
소비자신뢰지수 ²⁾	128.3	100.9	96.1	62.3	62.6	128.9	125.1	115.2	109.3
경기선행지수 ³⁾	111.5	106.1	110.6	114.4	117.1	115.4	116.4	117.3	117.5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8월 실물지표 감소세, 선행지수 급락으로 경기 둔화세 우려

- 8월 생산과 수주,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수출 둔화와 수입 증대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도 3개월 만에 적자.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기 여건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日銀(BOJ)이 2021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하향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2.8	-1.1	0.5				
광공업생산	-2.7	-10.6	5.7	2.8	1.2	-6.5	6.5	-1.5	-3.6
민간기계수주	-0.9	-8.5	12.9	-5.3	4.6	7.8	-1.5	0.9	-2.4
소매판매	0.1	-3.5	0.1	0.4	-2.1	-0.3	3.1	1.0	-4.0
소비자물가	0.5	0.0	-0.6	0.5	-0.5	0.3	0.3	0.2	-0.2
실업률(%)	2.4	2.8	3.0	2.8	2.9	3.0	2.9	2.8	2.8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1,959	542	434	-193	379	436	-637
경기선행지수 ¹⁾	93.8	88.6	96.2	99.7	103.4	102.6	104.2	104.1	101.8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9월 실물지표 혼조세, 3분기 성장률 2020.3분기 이후 최저

- 9월 생산과 투자 등 공급 지표들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소비와 수출 등 수요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완만한 흐름. 3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외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2020.3분기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18.3	7.9	4.9				
산업생산	5.7	2.8	24.6	9.0	4.9	8.3	6.4	5.3	3.1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30.3	12.6	7.3	12.6	10.3	8.9	7.3
소매판매	8.0	-3.9	34.0	14.1	5.1	12.1	8.5	2.5	4.4
소비자물가	2.9	2.5	0.0	1.1	0.8	1.1	1.0	0.8	0.7
수출(달러화기준)	0.5	3.6	48.7	30.3	24.4	31.8	19.0	25.6	28.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8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진입

- 8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역내 경기체감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 여파로 2011.11월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인플레이 우려 가중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4	-0.3	2.2				
산업생산	-1.4	-8.5	4.4	1.2	0.1	-1.1	0.2	1.4	-1.6
소매판매	2.4	-1.0	-1.2	-1.3	3.9	4.2	1.9	-2.6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3	1.1	1.8	2.0	1.9	2.2	3.0
무역수지(10억유로)	220.5	234.6	84.0	56.9	44.5	12.0	17.5	20.7	4.8
경기체감지수 ¹⁾	103.7	88.2	91.4	95.3	114.3	114.5	117.9	119.0	117.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 유가 상승 전환

- 달러화는 지난 10월중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관련 불확실성 완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약세를 보인 이후, 11월 들어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확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전환
- 유가는 10월중 산유국들의 증산 속도 유지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지속,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상승하고, 11월 들어서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일시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 전환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10일
엔/달러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91
달러/유로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479
미 국채 (10년만기)	1.40	1.74	1.63	1.59	1.47	1.22	1.31	1.49	1.55	1.55
WTI유	61.5	59.2	63.6	66.3	73.5	74.0	68.5	75.0	83.6	81.3
두바이유	63.1	62.4	64.5	66.6	73.0	73.3	69.4	75.9	81.9	83.2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0.3% 성장, 9월 전산업생산 1.3% 증가

○ 3분기 국내 실질GDP는 수출 증가 전환에도 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0.3%로 추가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4.0% 증가

- 수출이 전분기(전기비 -2.0%)와 달리 증가세(1.5%)를 보인 반면에,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3분기 만에 동반 감소세(각각 -0.3%와 -2.3%)를 보이고, 건설투자 역시 전분기(-2.3%)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3.0%)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2.2	-0.9*	1.9* (1.7*)	6.0* (0.8*)	4.0**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1.2* (1.2*)	3.7* (3.6*)	3.2**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12.4* (6.1*)	12.8* (1.1*)	4.3** (-2.3**)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1.8* (1.3*)	-1.2* (-2.3*)	-0.7** (-3.0**)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2.7 (1.7)	7.2 (0.4)	3.9* (0.5*)	6.4 (1.6)	4.5 (-0.7)	5.9* (-0.2*)	1.4* (1.3)
광공업생산지수	0.4	-0.4	4.4 (3.4)	12.7 (-1.2)	5.0* (0.5*)	11.5 (2.3)	7.8 (0.2)	9.7* (-0.7*)	-1.8* (-0.8*)
제조업생산지수	0.5	-0.3	4.4 (3.4)	13.2 (-1.2)	5.1* (0.4*)	11.8 (2.5)	7.4 (-0.1)	10.2* (-0.4*)	-1.9* (-0.9*)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2 (0.7)	5.7 (1.7)	3.9* (0.9*)	4.9 (1.6)	4.0 (0.1)	4.2* (-0.8*)	3.3* (1.3*)
소매판매액지수	2.4	-0.2	6.4 (1.7)	4.4 (2.7)	5.1* (0.1*)	1.6 (1.4)	7.9 (-0.5)	3.8* (-0.8*)	3.7* (2.5*)
설비투자지수	-5.7	6.0	11.9 (6.9)	12.7 (0.7)	6.0* (-2.3*)	10.6 (0.2)	11.0 (2.0)	12.4* (-4.6*)	-4.5* (-1.0*)
건설기성액	-2.3	-4.1	-7.2 (-3.6)	-5.3 (-2.4)	-5.7* (-1.4*)	-5.6 (-0.7)	-8.1 (-2.0)	-0.1* (1.4*)	-8.4* (3.5*)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4.4	116.6	117.1*	116.8	117.0*	117.1*	117.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98.8	99.7	101.2	101.2*	101.2	101.3*	101.2*	101.2*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4.7	127.1	128.2*	127.9	128.1*	128.2*	128.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1	99.6	101.6	102.5	102.4*	102.8	102.7*	102.4*	102.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에서 전월비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서비스업생산이 증가 전환한 데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에서 3개월 연속 감소세(전월비 -0.9%)가 이어지면서 전월비 0.8%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2개월 만에 증가(1.3%)
 - 소매판매는 내구재(-1.7%) 판매의 감소에도 비내구재(3.8%)와 준내구재(5.1%) 판매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2.5% 증가한 반면에, 설비투자 는 기계류(-0.5%)와 운송장비(-2.7%)의 동반 감소로 전월비 1.0%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 등이 감소함에도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0.2% 상승(8개월 연속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감소한 반면에,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보합

□ 물가 :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상승, 전년동월비 3.2% 상승

- 10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4%)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1.6%)에서 하락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2.2%), 음식·숙박(0.2%) 등에서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전월비 0.1% 상승(전년동월비 3.2%,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
- 지난 9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0.8%)이 3개월 만에 하락하고, 공산품(0.3%)과 서비스(0.0%)도 전월보다 상승폭이 동반 둔화되면서 전월비 상승률이 0.2%로 하락(전년동월비 7.5%,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0.4	0.5	1.1 (1.2)	2.5 (0.5)	2.6 (0.8)	2.6 (0.1)	2.4 (-0.1)	2.6 (0.2)	2.6 (0.6)	2.5 (0.5)	3.2 (0.1)
근원물가	0.9	0.7	0.9 (0.6)	1.4 (0.6)	1.8 (0.5)	1.5 (0.3)	1.5 (0.1)	1.7 (0.1)	1.8 (0.3)	1.9 (0.3)	2.8 (0.3)
생산자물가	0.0	-0.5	2.4 (2.6)	6.4 (2.5)	7.4 (2.0)	6.6 (0.5)	6.6 (0.5)	7.4 (1.0)	7.4 (0.5)	7.5* (0.2*)	-
근원물가	0.1	-0.1	2.4 (2.0)	6.0 (2.7)	7.2 (1.8)	6.2 (0.6)	6.4 (0.5)	7.0 (0.9)	7.3 (0.5)	7.4* (0.2*)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0월 기업대출 확대·가계대출 둔화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폭 역시 확대
(21.9월 +7.7조원 → 21.10월 +10.3조원, 대기업 +2.3조원, 중소기업 +8.0조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데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시설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
- 회사채 발행은 금리 변동성 확대와 전월 선발행 확대 등 영향으로 축소
(21.9월 +2.0조원 → 21.10월 +0.2조원)
- CP는 순상환 규모가 전월보다 약간 축소
(21.9월 -1.3조원 → 21.10월 -1.0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기업공개(IPO)가 줄어들면서 전월보다 감소
(21.9월 +1.8조원 → 21.10월 +1.1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45.2	7.5	106.3	9.2	82.9	7.9	7.7	10.3	1,059.3
(대 기 업)	-0.9	1.1	24.8	1.0	6.5	0.3	0.3	2.3	178.3
(중소기업)	46.1	6.3	81.5	8.2	76.5	7.5	7.4	8.0	881.0
<개인사업자>	21.3	2.8	41.8	4.3	33.2	3.4	3.5	2.6	419.2
■회사채 순발행	17.2	3.6	14.7	1.0	17.1	-0.2	2.0	0.2	..
■CP 순발행	5.8	0.1	4.1	-1.5	6.5	-0.2	-1.3	-1.0	35.0
■주식발행	4.6	0.5	7.1	1.2	26.0	6.6	1.8	1.1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기타대출도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축소
(21.9월 +6.4조원 → 21.10월 +5.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9월 +5.6조원 → 21.10월 +4.7조원)
- 기타대출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
(21.9월 +0.8조원 → 21.10월 +0.5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46.5	7.2	80.2	10.6	69.1	6.1	6.4	5.2	1,057.9
■ 주택담보대출	35.2	4.6	55.8	6.8	52.6	5.8	5.6	4.7	774.5
■ 기타대출	11.4	2.5	24.6	3.8	16.4	0.3	0.8	0.5	282.4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1월 중순(11.1~11.10일) 금리 하락 & 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중 글로벌 인플레이 우려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전망,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에, 11월 들어 정부 당국의 시장안정화 대책 강구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11.1일 2.11% → 11.10일 1.88%, -0.23%p)
- 원/달러 환율은 10월 중후반 이후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중국 부동산업체 파산 우려 완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하락하고, 11월 들어서는 연준의 FOMC 경계감과 미·중 갈등 우려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
(11.1일 1,176.5원 → 11.10일 1,180.9원, +4.4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2/4	3/4	4/4	1/4	2/4	8월	9월	10월	11.10일
국고채(3년)	0.84	0.85	0.98	1.13	1.45	1.40	1.59	2.10	1.88
회사채(3년, AA-)	2.25	2.19	2.21	2.06	1.97	1.83	2.05	2.57	2.42
CD(91일)	0.79	0.63	0.66	0.75	0.68	0.92	1.04	1.12	1.15
CP(91일)	1.51	1.11	1.09	1.00	0.97	1.12	1.18	1.24	1.31
원/달러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9.5	1,184.0	1,168.6	1,180.9
원/100엔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57.0	1,058.2	1,031.7	1,037.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1.9%, 전월비 -0.9%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전년동월비 30.6%)를 제외하고 기계장비(4.0%)와 1차 금속(1.9%), 화학제품(1.7%) 등에서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자동차(-24.2%)와 섬유제품(-6.3%) 등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11개월 만에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7.4%)에서 증가세가 전월(23.6%)보다 둔화되고, 중공업(-0.5%)과 경공업(-7.6%)에서도 다시 감소세로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계장비(3.6%)와 기타운송장비(5.2%)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1.6%)를 비롯해 자동차(-9.8%), 섬유제품(-1.6%), 화학제품(-0.7%) 등에서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3개월 연속 감소세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8)는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0.5%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는 0.1%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2%로 전월보다 1.1%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3분기중 출하 증가 폭이 축소(11.5% → 2.7%,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되고, 재고가 증가세로 전환(-4.8% → 3.1%)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과 달리 0.6%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3.3%, 전월비 +1.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0.2%)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0.2%) 등에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운수·창고(7.5%), 정보통신(5.6%)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숙박·음식점(11.2%) 등이 큰 폭 증가하면서 3.3%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0.7%)가 소폭 증가하고, 운수·창고(4.5%)와 숙박·음식점(10.9%) 등에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데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3.5%) 등에서 증가세가 확대된 데 힘입어 2개월 만에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4.0%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4%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09.8	113.7	111.7	115.8	109.3	110.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4.4	12.7	5.0	7.8	9.7	-1.8	-0.8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09.1	114.4	112.1	115.9	109.4	110.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4.4	13.2	5.1	7.4	10.2	-1.9	-0.9
섬 유	135.0	-5.9	-10.5	-4.5	25.0	5.1	12.6	10.4	-6.3	-1.6
화 학	883.8	-1.3	-3.0	2.8	15.7	7.5	11.6	9.4	1.7	-0.7
철 강	454.3	-2.2	-6.3	-1.9	13.3	12.0	19.3	14.7	2.8	0.5
반도체	1,285.6	11.7	22.7	21.9	27.2	33.9	34.7	36.8	30.6	-1.6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3.2	8.8	-7.6	3.4	-2.4	-22.6	-8.4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8.7	41.7	19.3	16.0	28.6	13.6	-4.1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17.0	31.7	16.4	24.6	17.4	7.9	3.6
기계, 장비	819.2	-5.9	3.6	9.4	18.4	7.6	8.4	10.6	4.0	3.6
자동차	981.6	-0.5	-10.0	11.2	22.5	-8.6	-3.4	6.2	-24.2	-9.8
조 선	206.3	17.6	8.6	-15.6	-17.6	-22.7	-21.3	-22.1	-24.5	6.5
- 중 공 업	-	0.6	0.6	5.5	14.4	6.5	9.3	11.5	-0.5	-1.2
- 경 공 업	-	-0.6	-4.0	-0.3	7.4	-1.5	-0.6	4.4	-7.6	0.3
- 제조업ICT	-	4.8	11.9	14.0	19.9	21.0	22.2	23.6	17.4	2.0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05.9	110.8	110.0	111.0	108.5	110.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2	5.7	3.9	4.0	4.2	3.3	1.3
도소매	211.3	-0.4	-2.6	3.1	5.2	3.6	5.5	5.3	0.2	0.7
운수및창고	90.3	0.0	-14.2	-2.4	11.0	7.0	6.3	7.4	7.5	4.5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13.1	1.5	-1.5	-8.0	-5.3	11.2	10.9
정보통신	79.9	3.6	1.5	2.0	3.9	6.9	7.3	7.7	5.6	0.0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5.0	9.7	6.3	7.9	6.4	4.5	-0.6
부동산	31.8	0.5	5.5	-2.6	5.7	0.4	-3.9	4.1	1.3	-1.5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2.1	4.2	0.2	-2.1	2.7	0.2	3.5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3.8	5.6	3.0	4.3	2.3	2.4	0.7
교 육	106.0	-0.4	-4.7	0.2	3.0	1.6	2.3	0.8	1.6	0.0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8	3.1	4.5	4.9	4.5	4.3	-0.1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18.0	20.6	7.6	1.6	6.4	15.5	11.2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8	0.3	-0.6	1.6	-2.6	-0.6	4.9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0.5	6.1	3.4	9.8	5.8	-5.1	-3.4
- ICT서비스업	-	3.5	4.9	4.3	4.4	6.4	8.1	7.2	4.0	3.4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10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5% → 2.4%)
 -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보다 더욱 축소(-0.8% → -0.3%)
 -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전월보다 소폭 낮아지고(1.4% → 1.3%),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둔화(3.3% → 3.0%)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소폭 하락(2.7% → 2.5%)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감소율도 전월보다 약간 더 하락(-1.5% → -1.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에서는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1.6% → 12.5%)를 비롯해서 교육서비스(5.6% → 6.1%)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1% → 5.4%)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0.1% → -2.7%)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3.8% → 1.4%)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4.3% → 3.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2%로 2개월 연속 상승세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 업	27,123	26,904	26,369	27,467	27,645	27,637	27,648	27,603	27,683	27,741
전년동기비	1.1	-0.8	-1.4	2.3	2.1	2.2	2.0	1.9	2.5	2.4
농림·어업	4.1	3.6	-0.2	0.2	1.5	1.0	0.7	2.4	1.4	1.3
제 조 업	-1.8	-1.2	-0.6	0.1	-0.8	-0.2	0.1	-1.7	-0.8	-0.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2.9	2.8	2.7	2.5	2.6	3.3	3.0
건 설 업	-0.7	-0.2	1.7	7.0	4.4	7.0	4.6	6.1	2.7	2.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0	-5.3	-6.9	-2.4	-2.6	-2.7	-3.5	-2.7	-1.5	-1.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1.8	5.2	6.9	5.8	6.2	6.3	8.3	9.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4	4.3	4.1	3.9	4.2	3.7	4.3	3.9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4.4	3.7	3.0	3.7	3.3	2.8	3.0	3.2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0월 수출 24.0% 증가, 수입 37.8% 증가, 무역수지 흑자 17억 달러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4.0% 증가한 556억 달러, 수입은 37.8% 증가한 53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대상국에 있어서도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세가 지속

- 수입도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과 수출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1차산품 및 중간재 위주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4.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66.2%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3.3%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은 60.7% 증가한 약 58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64 (12.5)	1,568 (42.1)	1,645 (26.5)	548 (39.7)	555 (29.7)	532 (34.7)	558 (16.7)	556 (24.0)
수입	5,033 (-6.0)	4,676 (-7.1)	1,365 (12.3)	1,491 (37.5)	1,568 (37.5)	504 (40.7)	536 (38.1)	516 (44.0)	516 (31.0)	539 (37.8)
무역수지	389	452	99	77	77	44	18	16	42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0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15대 품목중 자동차·자동차부품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디램 고정가격이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에,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계절적 성수기로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파운드리

업체의 가격 인상 검토 등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며 16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전하게 정상화되지 못한 데다, 국내 공장들의 라인 설비 공사까지 겹치면서 최대 수출국인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
- **자동차부품**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현지 공장들의 가동률도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미국·EU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개월 연속 감소
- **선박류** :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선박 인도가 일부 지연된 이후, 올해는 인도 및 통관이 정상화되면서 수출이 다시 증가 전환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도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는 OLED TV 시장의 확대와 OLED를 탑재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연이은 출시 등에 힘입어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국내 기업들의 신규 폴더블폰이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다, 해외 신규 모델에 투입되는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對중국 수출이 대폭 성장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석탄가격 강세로 철강재 수출단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다, 건설·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 수요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최대 수출시장인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고 있으며,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아세안·중국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도 2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석유제품** :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로 석유 증산 여력이 제한적인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도 전년대비 두 배 상승하면서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건설 등 전방산업들의 경기 회복으로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요

가 호조세를 보이고, 중국의 전력난으로 석유화학 생산이 감소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도 큰 폭 오르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 NC선반·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주문이 큰 폭 증가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비한 주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EU·중국 등지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출도 증가
- **컴퓨터** : 노트북·PC 등 비대면 수요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나,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SSD 탑재 수요 증가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도 8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5.3	-13.1	31.4	74.8	6.5	62.4	12.3	16.9	-6.1	-4.7
자동차부품	-2.5	-17.3	5.6	123.1	14.9	108.0	34.9	22.2	-5.2	-1.2
선박류	-5.2	-2.0	28.3	11.9	-1.9	41.3	9.4	38.2	-40.5	6.4
일반기계	-1.9	-8.9	-1.4	21.2	15.9	21.2	18.2	23.4	7.9	12.7
철 강	-8.6	-14.5	7.5	50.6	45.3	51.6	41.5	53.5	41.7	48.6
석유화학	-14.8	-16.4	26.5	80.3	63.9	66.9	60.2	81.6	52.0	68.5
석유제품	-12.2	-40.6	-16.6	112.6	69.8	83.7	75.8	54.5	79.2	138.1
섬 유	-8.0	-13.3	-8.3	46.0	9.9	36.4	17.4	19.0	-3.6	22.1
가 전	-3.8	0.7	15.8	66.5	11.7	47.5	29.7	12.3	-4.1	13.9
무선통신기기	-17.6	-6.4	21.6	38.5	25.8	3.4	5.0	62.1	19.9	15.5
컴퓨터	-20.6	57.2	2.8	8.9	34.0	16.5	26.4	26.1	49.4	52.7
반도체	-25.9	5.6	14.0	29.7	36.3	34.4	39.6	42.6	28.2	28.8
디스플레이	-17.0	-12.2	16.3	36.0	25.2	28.2	38.0	23.7	17.3	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0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美 테이퍼링이 신흥국 경제 및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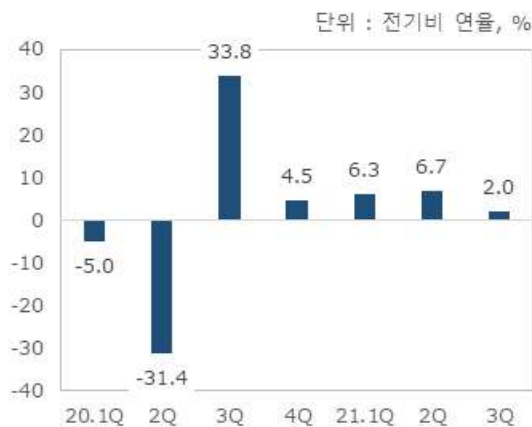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1.10.21일)

- 팬데믹 선언 직후 미국은 막대한 재정지출에 더해 전례 없는 수준과 속도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회사채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단행
- 하지만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이르면 연말부터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리 경제와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대두

□ 최근 미국경제 동향 및 전망

-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라 당초보다 낮은 6.0% 예상

<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 추이 >



< IMF의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 >



-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테이퍼링 개시 여부의 핵심 지표가 되는 고용 부문에서 여전히 기대 이하의 회복세
 -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폭(천명) : '21년 7월 1,091 → 8월 366 → 9월 194
- 내구재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소비가 8월 까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인플레 우려로 소비심리가 위축
- 미국의 주가(S&P500)는 지난 9월 최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고, 국채금리(10년)와 달러화 가치는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

□ 최근 신흥국 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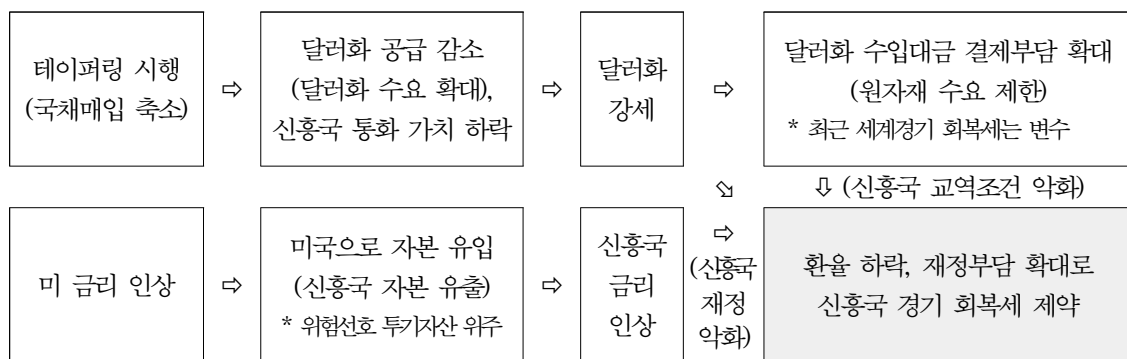
- 신흥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2021년 6.4%, 2022년 5.1%로 예상(IMF)
- 물가는 올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주가는 2월 최고점 이후 약보합세, 통화 가치는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세로 전환

- 주요 신흥국들은 미국의 본격적인 테이퍼링과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중이나,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GDP 대비 높은 정부부채 비중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황

□ 美 테이퍼링이 신흥국 경제 및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기조는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와 우리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美 테이퍼링의 신흥국 파급 경로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테이퍼링·금리인상) 진행과 함께 재정여건이 취약한 fragile 5개국은 글로벌 교역과 수입시장에서의 비중이 급락
 - fragile 5개국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 테이퍼링이 처음 언급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들의 對세계 수입수요(약 40%)보다 더 탄력적
 - 對신흥국 수출비중 : '19년 56.2% → '20년 56.6% → '21년(1~8월) 55.8%
 - 다만 중국, 베트남 등 5대 신흥국 수출비중이 전체 신흥국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신흥국에서의 수출감소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달러화 강세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수입원자재를 사용하는 수출기업에 부담 가중 우려

□ 시사점

- 국내 수출기업들은 연준의 출구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 하고, 對신흥국 거래시 바이어 신용조사 등을 통해 자금회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1.15)	(11.16)	(11.17)	(11.18)	(11.19)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10월 고정투자  21.3분기 실질GDP (잠 정 치)  9월 산업생산(수)  9월 소매판매(수)  9월 수출입통계	 21.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 판매	 10월 무역수지(잠)  9월 기계수주  10월 소비자물가(수)	 10월 경기선행지수	 10월 소비자물가  10월 생산자물가
(11.22)	(11.23)	(11.24)	(11.25)	(11.26)
	 11월 소비자동향조사	 10월 내구재수주(잠)  10월 개인소비  21.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9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금융통화위원회	 10월 무역수지(수)
(11.29)	(11.30)	(12.1)	(12.2)	(12.3)
 10월 소매판매(잠)  11월 경제체감지수	 10월 산업생산(잠)  10월 실 업 률  11월 소비자물가(예)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0월 산업활동동향	 11월 ISM 제조업지수  11월 수출입통계	 10월 실 업 률  11월 소비자물가  21.3분기 실질GDP (잠 정 치)	 10월 소매 판매  11월 ISM 비제조업지수  11월 고용보고서
(12.6)	(12.7)	(12.8)	(12.9)	(12.10)
	 11월 수출입통계  10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21.3분기 실질GDP (확 정 치)  10월 무역수지	 21.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1월 소비자물가	 11월 소비자물가